

전북미술사 연구시리즈 첫 여성 작가 연구전

전북도립미술관, '허산옥, 남쪽 창 아래서' 개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오는 15일부터 전북 출신 여성 예술가 허산옥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전북미술사 연구시리즈 '허산옥, 남쪽 창 아래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시리즈 최초의 여성 작가 연구전이다. 이를 통해 지역 여성미술사 연구의 기초를 다지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계기로 삼고자 마련됐다. 또한 지금까지 주로 서양화가들을 중심으로 조명해 온 시리즈의 범위를 확장해 사군자와 회화화 등 전통 회화 부문을 처음으로 다루는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르면 허산옥의 본명은 허귀녀로 행원(杏園) 또는 남전(藍田)이라는 호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김제에서 태어나 남원권에서 수학했고, 해방 이후 전주 풍납문 근처에서 요릿집 '행원(杏園)'을 운영하며 지역 예술인들의 교류와 담론의 장을 열었다.

그는 의재 허백련과 강암 송성용에게 사군자와 서예를 배우며 전통 문인화의 기법을 익혔다. 특히 1970~80년대 완숙기에 이른 채색 화조화에서는 화려한 색채와 자유로운 필치로 삶과 예술의 균형을 표현한 허산옥만의 미적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역 근현대미술 안에서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던 여성 화가의 삶과 작품을 통해 지역 미술사의 다층적 면모를 다시 바라보는 기획이다. 해방 이후 전북 화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술사적 평가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허산옥의 삶과 작품을 추적해 그가 구축한 미적 세계를 새롭게 해석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전시실에서는 허산옥의 작품과 더불어 그녀가 교류했던 지역 작가들의 작품, 그리고 새롭게 발굴된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지역 미술사 속 여성 예술가의 궤적을 복원했다. 나아가 그를 둘러싼 시대적 맥락과 지역 미술의 정체성, 그리고 여성 예술가로서의 내적 서사를 함께 탐색함으로써 지역 미술사와 여성 미술사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같은 기간 박경덕, 이율이 참여하는 '전북청년 2025: 보이지 않는 땅'을 개최한다. 올해 11화자를 맞이한 '전북청년'은 공모와 심사를 거쳐 도내의 청년 시각예술가를 발굴·조명하는 기획이다.

발하게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술사적 평가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허산옥의 삶과 작품을 추적해 그가 구축한 미적 세계를 새롭게 해석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전시실에서는 허산옥의 작품과 더불어 그녀가 교류했던 지역 작가들의 작품, 그리고 새롭게 발굴된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지역 미술사 속 여성 예술가의 궤적을 복원했다. 나아가 그를 둘러싼 시대적 맥락과 지역 미술의 정체성, 그리고 여성 예술가로서의 내적 서사를 함께 탐색함으로써 지역 미술사와 여성 미술사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같은 기간 박경덕, 이율이 참여하는 '전북청년 2025: 보이지 않는 땅'을 개최한다. 올해 11화자를 맞이한 '전북청년'은 공모와 심사를 거쳐 도내의 청년 시각예술가를 발굴·조명하는 기획이다.

발하게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술사적 평가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허산옥의 삶과 작품을 추적해 그가 구축한 미적 세계를 새롭게 해석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전시실에서는 허산옥의 작품과 더불어 그녀가 교류했던 지역 작가들의 작품, 그리고 새롭게 발굴된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지역 미술사 속 여성 예술가의 궤적을 복원했다. 나아가 그를 둘러싼 시대적 맥락과 지역 미술의 정체성, 그리고 여성 예술가로서의 내적 서사를 함께 탐색함으로써 지역 미술사와 여성 미술사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같은 기간 박경덕, 이율이 참여하는 '전북청년 2025: 보이지 않는 땅'을 개최한다. 올해 11화자를 맞이한 '전북청년'은 공모와 심사를 거쳐 도내의 청년 시각예술가를 발굴·조명하는 기획이다.

아프리카 대중문화 조명 학술대회 개최

전북대 프랑스·아프리카연구소, 14일 정체성·사회 담론 등 전반 조명

프랑스·아프리카연구소(소장 조희림)는 오는 14일 전북대 인문사회관에서 '아프리카 대중문화의 스펙트럼과 동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2일 정복대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는 아프리카 대중문화가 지닌 다층적 스펙트럼과 전개 양상을 학문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음악, 영화, 미디어, 디지털, 언어 등 다양한 문화 영역을 통해 드러나는 아프리카의 정체성과 사회적 실질을 분석함으로써, 대중문화

가 형성하는 사회적 담론과 문화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할 예정이다.

또한 아프리카 대중문화 연구의 국내외의 주요 성과와 동향을 검토하고, 학제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연구 지평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대 프랑스·아프리카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인문사회 3.0(HK3.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아프리카 대중문화의 스펙트럼과 동향' 포스터

/장은성 기자

익산 백제문화체험관, 프로그램 다채

익산시가 연말을 맞아 백제 문화와 현대 감성을 결합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익산시는 백제문화체험관에서 오는 18일부터 12월 25일까지 체험 프로그램 '백제에 남긴 추억'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백제에 남긴 추억은 △백제의복 공유 풀더 △추억 트리 꾸미기 △미륵사지 석탑트리 만들기로 구성됐다.

'백제의복 공유풀더'는 오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백제의복 체험 후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는 참여 이벤트다.

'추억 트리 꾸미기'는 오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진행되며, 관람객의 인생네컷 사진을 백제문화체험관에 설치된 벽트에 장식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미륵사지 석탑 트리 만들기'는 12월 25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회차당 12명을 대상으로 백제의 상징인 미륵사지 석탑을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로 재해석한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영화제 스크리닝·영사 매니저 양성 나선다

전주국제영화제가 '2025 영화제 스크리닝 및 영사 매니저 양성 교육' 수강생 모집에 나섰다. 모집 인원은 최대 15명이며, 접수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이에 따르면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영화 상영 능력 이해 및 실무자 양성 과정'으로, 지역의 영화 관련 인력 인프라를 확대하고 영화 상영 능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역 영화 산업과 영화제 발전을 목표로 기획됐다. 교육은 영화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과정에서는 영상·오디오 규격 등 디지털 시네마의 기초 이론부터 영화 상영 시뮬레이션, 현장 실습까지 영화제 기술 파트 전반을 다룬다. 특히 실제 영화제 상영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되는 스크리닝 실습은 현장 실무 감각을 익히는 핵심 과정으로, 참가자들이 향후 영화제 운영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스크리닝 매니저와 영사 매니저는 개막 전 상영작과 상영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상영 중 기술적 사고를 예방해 관객에게 최적의 관람 환경을 제공하는 영화제 운영의 핵심 인력이다.

교육은 다음달 3~18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전주영화제작소 3층 교육실에서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출석률 90% 이상으로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스크리닝·영사 매니저 선발 시 서류 전형 우선 통과(1차 합격) 및 면접 전형 가산점의 혜택이 주어진다.

온라인 링크(<https://forms.gle/VjP4UJHjVwmCWw6>)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기술팀(대표번호 1899-5433(부서안내 8번) 기술팀 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립농악단, 판굿이 전하는 이야기

14일·28일·12월 5일 남원 청아원서 읍니버스 창작타악연회 개최

남원시립농악단이 11월 14일, 11월 28일, 12월 5일 매회 금요일 오후 7시 남원 청아원 공연장에서 읍니버스 창작타악연회 '판굿이 전하는 이야기'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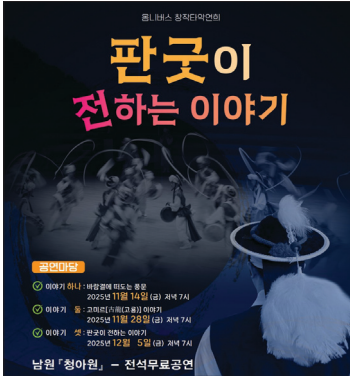
이번 공연은 시립농악단이 창단 20년만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창작 기획공연으로, 전통연하단 재주상단, 검무 지무단이 협연해 역사와 예술, 흥이 어우러지는 화려한 무대를 만든다.

'판굿이 전하는 이야기'는 군인들의 훈련과 전투의 내용이 깃들여 있는 남원농악을 모티브로, 남원 곳곳에 깃든 전쟁의 기억과 민초들의 희로애락을 예술로 풀어낸 읍니버스 3부작 연회극이다.

각 회차마다 남원농악이 군사농악으로 형성되기까지 민인의충, 교통상선, 지리산을 비롯한 남원 곳곳의 전쟁의 역사, 전설의 이야기들을 모티브 삼아 세 편의 연작 시리즈를 엮어 모듬북, 검무, 사물놀이 등 다양한 타악 퍼포먼스로 구성하여 새로운 창작 농악무대로 관객을 만난다.

14일 저녁 7시 이야기꾼들이 남원 어디선가 있었던 승전 소식을 전하는데, 모듬북 퍼포먼스로 전투가 그려지고, 이야기꾼들의 저글링 등의 놀이판이 곁들여지며, 남원 청소년농악단과 남원시립농악단의 사물놀이 공연 '바람결에 떠도는 풍문'으로 첫 무대를 연다.

28일 저녁 7시에는 두 번째 이야기 '고미르(古龍, 古洞) 이야기'가 펼쳐지고, 12월 5일 저녁 7시에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판굿이 전하는 이야기'가 올려진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작품에서 남원농악 판굿에 담겼을 전쟁과 희로애락을 그려보았다면, 세 번째 작품에서는 시리즈의 마침표로서 남원농악 판굿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 공연 '바람결에 떠도는 풍문'으로 첫 무대를 연다.

28일 저녁 7시에는 두 번째 이야기 '고미르(古龍, 古洞) 이야기'가 펼쳐지고, 12월 5일 저녁 7시에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판굿이 전하는 이야기'가 올려진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작품에서 남원농악 판굿에 담겼을 전쟁과 희로애락을 그려보았다면, 세 번째 작품에서는 시리즈의 마침표로서 남원농악 판굿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남원=김기두 기자

태권도 최초 등록문화유산 지정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자료 전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태권도 최초로 등록문화유산에 등재된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자료를 12일부터 특별 전시를 통해 공개한다.

지난 9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자료 11점을 중심으로 사진자료 39점,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전무회 보유 깃발 3점 등 53점과 영상 자료를 국립태권도박물관 특별 전시공간에서 선보인다.

1962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 태권도 교관단이 현지 군인과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태권도 수련 및 지도 과정에서 사용한 '교육 및 훈련 자료집', '대회 규정집'을 비롯해 '베트남 정부 훈장 수여 문서', 당시 착용한 '태권도 도복' 등 태권도 세계화 현장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주월한국군 태권도 교관단의 이름을 특별 전시공간 한 면에 기록해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교관단의 땀과 노력도 알린다.

11일에 열린 특별전 개막식에는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과 황인홍 무주군수, 오광석 무주군회의의장과 함께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전무회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무회 회원들은 구술 채록 영상과 기증 사진, 문화유산



전시물 등을 관람하며 태권도 세계화 초석을 다진 그 시절을 되새겼다.

전무회 박영달 회장은 "조국과 태권도를 위해 헌신한 우리의 활약상이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 선보일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제는 문화유산으로 영원히 기록되게 되어 매우 감격스럽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태권도 교관단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태권도 보급과 교류 등 오늘날 세계 215개국이 함께하는 태권도 세계화의 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라며 "태권도진흥재단은 앞으로도 태권도 역사와 가치를 발굴,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